

박근혜 “보이지 않는 길 가는 게 무척 힘들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이해훈 총합상향실장(왼쪽)과 박수를 치고 있다. 김형수 기자

트위터 울러 ~ “약속 지키겠다” 강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11 총선 이후 첫 일정으로 12일 오전 9시 서울 동자동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묵념 후 방명록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적었다. 황우여 원내대표, 조현정 비대위원, 이해훈 선대위 상황실장,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 등 20여 명의 당직자와 의원이 동행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과 와 총선 19대 국회의장을 찾아 인사했다. 박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빨리 새 지도부를 구성해 당을 정상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

최대 약점 수도권 지지율 높여라

경기 남경필 서울 진영·정두언

새누리 새 지도부에 발탁 가능성

장 임장에서 새 지도부는 대선 경선을 잠을 없이 공격하 치르면서다.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자신을 받쳐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4-11 총선에서 박 위원장의 최대 약점으로 드러난 수도권 지지율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의 소장파들을 대거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박근혜계 인사사는 “경기도의 남경필 의원이나 서울의 진영·정두언 의원 등은 충분히 경쟁력이 입증된 인물들 아니냐”고 말했다. 당 밖에서 수도권의 20~30대에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들을 영입해 박 위원장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날 박 위원장이 강조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선거 때 제시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야당 대표 시절부터 민생 현

장에서 전달받았던 민원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기로 유명하다. 그는 조만간 당 지도부 구성 방안이 결론 나면 당의 전원에서 물러나 조용히 민생 챙기기 행보를 하며 공약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대선 후보 경선 전까지 전략적인 흐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각종 없는 편안한 노후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 ▶주거비 부담 덜기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보육에 관한 국가 완전 책임제 등 가족 행복 5대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이내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5대 약속을 추진할 책임자를 두는 ‘공약 실행제’도 실행했다. 한 측근은 “박 위원장은 이들 공약의 이행 상황을 손수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위원장은 선거기간 내내 새누리당을 괴롭힌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바로잡고,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향후 국회에서 야당이 청와대에 과상 공세를 퍼붓더라도 새누리당이 굳이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견 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 남경필 의원이나 서울의 진영·정두언 의원 등은 충분히 경쟁력이 입증된 인물들 아니냐”고 말했다. 당 밖에서 수도권의 20~30대에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들을 영입해 박 위원장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날 박 위원장이 강조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선거 때 제시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야당 대표 시절부터 민생 현

김정하·손국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한명숙 “사퇴하겠다”… 지도부 “비대위 만든 후에” 만류

민주당 패배 책임론 확산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식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 지도부에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과 비슷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조직은 만들고 물러나야 한다. 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비대위 같은 기구를 만들어 권한을 넘기지 않고 그만둘 경우 인책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해찬·정세균·문재인 역할 주목

일각선 노무현계 독주 비판론도

박지원 “출대 받은 호남이 길 열 것”

들이 본격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13일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 내부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정세균(서울 중로) 상임고문은 12일 라디오방송에서 “민심을 표로 연결시키지 못한 책임은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했다. “통합을 이루고 나서 당의 체제를 갖추는 데 미흡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이슈를 갖고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킨 데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공천에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자 당내의 시선은 노무현계로 향하는 분위기다. 그 핵심은 선거에서 살아온 이해찬(세종시·정세균·문재인(부산 사상) 상임고문 등)이다. 이 가운데 이 고문은 야권 내에서 ‘선거 당 지도부에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과 비슷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패배가 노무현계의 독주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만연한 가운데 상황은 그 반작용으로 호남 역할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박지원(전남 목포) 최고위원은 이날 “호남은 민주당을 수습하고 대선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내주고 맡겼다”고 했다. 여기에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채 당선된 박영선(서울 구로)의 원과 당내 486그룹도 당 역학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11 총선 다음 날인 이날 아침, 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으로 갔다. 방명록에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고 적었다. 석 달 전인 1월 16일 아침, 전날 밤 민주당을 지도부 경선에서 1위에 오른 한 대표가 찾은 곳도 김 전 대통령 묘역이었다. 그는 방명록에 “2012년 승리의 역사를 쓰겠습니다”고 썼다. 그는 경선 때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관리형 리더를 뽑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새누리당이 과반(152석)을 차지하면서 패배(敗北)이 되고 말았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박선숙 사무총장은 12일 이른 아침 사퇴했다.

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2일 서울 동자동 국립현대미술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한화한 뒤 참배하고 있다. 오정택 기자

런칭 1주년 100억 돌파기념!
20일간 20%할인 빅세일

바쁜현대인을 위해
멀티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를 한번에!
청정호주 No.1 블랙모어스 슈퍼트리플액션

20%할인된 가격은 CJ오쇼핑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080-000-8000
CJ오쇼핑 방송 4월 13일 오후 12:40/17:40
CJmail에서 **블랙모어스 20%** 를 쳐주세요

슈퍼트리플액션-8병(1+1 혜택)
기간: 4월4일~23일까지 단 20일간의 기회
혜택: 블랙모어스 최초 **20%** 파격 할인
198,000원 → **158,400원**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맞춤 영양 설계

블랙모어스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라면세점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BLACKMORES

국회의장, 강창희·정의화·황우여 물망 새누리당 대표엔 원외 중진 가능성도

이르면 다음달 전당대회

대선까지 염두에 둔 여권의 새판짜기가 시작된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19대 국회의장은 여당 몫이 됐다.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전·후반 2년씩 나눠 맡게 된 것이다. 또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 당 대표도 뽑아야 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빠른 시일 내에 당을 정상화하겠다”고 해 이르면 5월 전당대회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이 되는 강창희(대전 중)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수(選頭)에서 의장감으로 손색없는 데다 총청문에서 박근혜가 좌장 역할을 맡아 온 것이 강점이다. 전국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총청문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다. 그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그런 내가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5선이 되는 정의화(부산 중·동)·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이 함께 물망이 오른다. 정의화는 현재 국회부의장이고, 황 의원은 원내대표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는 ‘백의종군’ 선언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한 김부성 의원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PK(부산·경남)



강창희 정의화 황우여

선거 승리를 위해 뛰면서 ‘문재인 바람’을 막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때 불명했던 박 위원장과의 정치적 화해가 이뤄졌다고 한다. 수도권 출신 중에는 남경필(수원권·현재 4선)·정병국(여주·양평·가평·현재 3선) 의원이 젊은 당 대표감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참신한 인물이 전면에 배치되는 것이 낫지 않다는 목소리다.

국회의장감으로 거론되는 강창희 당선인 역시 대표 후보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년은 박근혜 집권을 위해 뛰고, 남은 3년은 지역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총로에서 낙선했지만 6선의 홍사덕 의원과 4선이 되는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외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위원장을 지원한 김용환 당 상임고문과 서청원 선대위 고문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이준석 “김형태·문대성 새누리 탈당 권고해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들이 4-11 총선에서 선출된 김형태(포항 남·울릉)·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인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당선인은 성폭행 미수 의혹이, 문 당선인은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준석 비대위원장은 12일 오후 MBN ‘뉴스M’에 출연해 “성추문 파문이 있었던 문(김형태), 논문 표절 관련 문제가 있었던 문(문대성) 등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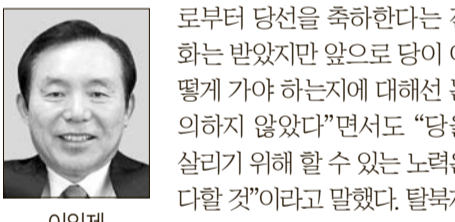
5석 건진 심대평, 당 대표직 사퇴 선진당 ‘이인제 당’으로 바뀌나

대선 앞두고 새누리라 할지 수도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12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4-11 총선에서 5석(지역구 3·비례 2)이라는 초라한 성적에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다. 그는 “연호남 양당 패권 정치의 폐해를 혁파하려 선진당의 역할을 호소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 부족했다”며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세종시에 출마해 민주당을 이겨낸 후 비례에 33.8% 대 47.9%로 패했다.

선진당은 곧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뒤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또 다른 당의 대주주인 이회창 전 대표도 이번 총선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자신의 지역구이던 흥성-예산을 측근인 서상목 전 의원에 넘겨주거나, 의석 확보에 미치지 못했다. 또 비서실장을 지낸 임영호(대전 동구) 의원을 지지했으나 역시 새누리당에 패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이인제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논산·계룡·금산에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을 이끌던 후보로 4선에 성공했다. 다만 만자당·민주당·자민련 등 야를 만나들며 9차례나 당적을 바꾼 경력이 부담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심 대표로부터 사퇴한다는 전화와 이 전 대표



이인제

로부터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는 받았지만 앞으로 말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락자 인권 운동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박선영 의원을 구원투수로 거론하는 이도 있으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걸림돌이다.

정치권에선 선진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질 보수연대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합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새누리당의 총청문 좌장인 강창희 전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선진당이 자민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2004년 총선에서 4석에 그치면서 한나라당에 흡수됐다. 새누리당으로서도 선진당과 단순한 보수연대를 뛰어넘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독자적으로도 과반을 넘긴 했지만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민주당합당과 통합진보당 연합당이 맞서려면 같은 보수 정당인 선진당을 우군으로 만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당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갖춰져 있다. 강창희 전 의원뿐 아니라 역시 박근혜 핵심인 김용환 상임고문도 이번 선거 기간 중 심대평 대표와 보수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다. 백일현 기자

이준석 “김형태·문대성 새누리 탈당 권고해야”

안 이 다르지만 엄격한 대응을 주문할 것”이라며 “과반의석을 무너뜨려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해신하겠다”고 말했다. 직후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그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반납한) 선영의 후보야 (탈락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의) 김용환 후보에게 적용한 것대로 보면 김형태 당선인은 용납이 안 된다”며 “일단 소명을 들은 뒤 문제가 확인되 /

HONDA
The Power of Dreams

다이나믹한 드라이브의 즐거움

Advanced Dynamic Sedan
All New CIVIC

신형 CIVIC 탄생

Spring Special Promotion (4월 등록과제) ■ 거처형 3D 네비게이션 증정 ■ 무상점검 연장(4년 8만km)

고객 시승 Event
All New Civic, CR-Z

전시장에서 Civic 또는 CR-Z를 시승하시고, 구매상담을 받으시는 고객분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전 시승고객: 스티커, 스티커, 시승기록 등 여행 수첩: iPad2 증정 ■ 기간: 4월말까지 ■ 문의: 각 지역 Honda 전시장

Honda 전시장	Huizen 본점: 031-789-2200	Doosan 강남: 02-511-0000	ILJIN 서울: 02-580-8000	KCC 울산: 02-6080-6000
D3 부산: 051-710-3000	Sun 대구: 053-784-3000	J-one 광주: 062-527-9999	KS 대전: 042-922-7000	

2012년 4월 13일 18:00 ~ 20:00
문의: 02-580-8000
www.hondacars.com